

• 정책제언

대학과목선이수제의 소개 및 성공적 도입을 위한 방안

박선미 |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교육연구원 교수

대학과목선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 UP)는 고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평가 결과를 대학입학 후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교육의 수월성 및 고교-대학 간 학습연계성을 추구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대학과목선이수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도로 2008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새로이 도입된 대학과목선이수제에 대하여 소개하고,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I. 대학과목선이수제 도입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974년 이후 학생들의 평등성과 교육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 고등학교 평준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30여 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평준화정책이 시행되면서 교육의 평등을 통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 교육인프라 구축, 그리고 사회통합과 같은 측면에서는 많은 장점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을 뛰어넘는 우수한 학생들의 지적 성취도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계발시키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수월성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재교육 대상자 확대, 조기진학 및 조기졸업 도입, 대학과목선이수제 도입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2004. 12)'을 발표하고, 학교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조화롭게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대학과목선이수제의 도입은 평준화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중심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서 도출된 대학과목선이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수 학생들의 능력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둘째, 획일적인 교육풍토 및 암기 위주의 교육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통해 우수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미래 과학기술 인력을 유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수시 합격자의 대학 입학 전의 학업 공백을 방지하고, 수학능력시험 이후 교육적으로 방기되는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넷째, 대학교육과 고교교육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노력

의 일환으로 교육의 평등성과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고등학교교육과 경쟁력 본위의 수월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학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박선미 외, 2005, 2006).

Ⅱ. 국내·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사례

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사례로는 미국의 AP(Advanced Placement)제도, 유럽의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제도, 영국의 GCE(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Level 시험 등이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과학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심화과정·속진과정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대학과정의 학습을 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AP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되어 온 대학과목 선(先)이수 프로그램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민족사관고등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외국어고등학교 등에서는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미국의 A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② 고교-대학 간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운영되고 있는 KAIST-한국과학영재학교의 협약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다. ③ 2003~200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05~2006년에는 서울, 부산 등 11개 시·도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하여 과학고, 외국어고 및 일반계고의 성적우수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였다. 이러한 시범운영을 통하여 제도의 도입을 공론화하였으며, 제도 시행의 문제점과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제도도입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제도권 내에서 수월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효과를 거양하고, 고교-대학 간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박선미 외, 2006, 2007).

Ⅲ.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추진경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04.2), 2008년도 이후 대학입학제도 개선(04.10) 및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04.12)을 통해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한국의 교육현실에서 미국의 AP제도와 같은 교육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유발될 수 있어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2006년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하여 시범운영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대학과목선 이수제(University-level Program; UP)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국가차원의 질 관리를 위해 제도운영을 총괄 지원·관리할 ‘대학과목선 이수제 주관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정되었다(07.6).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려대, 부산대, 상지대, 성균관대,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KAIST(가나다, 한글, 영어 순) 등 8개 대학을 대학과목선 이수제(UP) 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으며, 각 대학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6개 대학(부산대와 상지대 제외)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시범운영하였다. 교육은 2007년 7~8월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미적분학, 일반물리학, 일반물리학 실험, 일반화학, 일반화학 실험, 일반생물학, 일반생물학 실험 등 7개 과목이 개설되어 총 36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그리고 대학과목선 이수제(UP)의 본 시행을 위해 총 16개 대학이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07.11), 2008년 1~2월에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Ⅳ. 한국형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특징

한국의 대학과목선 이수제(UP)와 미국의 AP제도는 특정 학문 영역에 적성과 능력이 뛰어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수월성을 지향하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교육기관, 교육대상 선정, 교육내용, 평가, 이수 결과의 활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① 대학과목선 이수제(UP)

표 1. 대학과목선 이수제(UP)와 미국 AP제도의 비교

구분	우리나라 대학과목선 이수제(UP)	미국 AP
도입 시기	2005년 시범운영 · 2008년 시행	1955년
주관기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지향점	수월성	수월성
교육기관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대상	학업성취도가 높은 고등학생	학업성취도가 높은 고등학생
교육대상 선정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희망하는 학생
교육내용	이공계 과목 우선 적용, 표준교육과정 편성 · 운영	22개 교과에서 37개 과목 운영
평가	개별 대학교, 홈스쿨링 학생 응시 불가	표준화된 평가(AP Test), 홈스쿨링 학생 응시 가능
이수 결과의 활용	대입 후 학점인정	대입 전형에 활용 및 학점인정

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우수학생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UP 교과목의 이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AP제도는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좌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② 대학과목선 이수제(UP)는 수학 · 과학 과목이 우선 개설되며, 학문 내용의 위계성이 뚜렷한 교과목 중심의 심화학습 내용으로 운영된다. 대학은 국가차원에서 제시된 표준교육과정을 편성 · 운영하게 된다. 반면 AP제도는 자연과학, 인문 · 사회과학, 예술 등 22개 교과에서 37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③ 대학과목선 이수제(UP)는 개별 대학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이수 대학에 상관없이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게 된다. 반면 AP제도는 전국단위의 성취도 검사인 AP 시험(AP Test)을 실시하며, 홈스쿨링을 통한 AP 시험에의 응시가 가능하다. 이러한 AP 시험 점수는 미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학입학 전형에서 학생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대학과목선 이수제(UP)는 도입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AP제도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사실이나,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학과목선 이수제(UP)는 교육기관 등록에서 이수 결과의 처리까지 [그림 1]과 같은 단계로 운영된다.

V. 대학과목선 이수제 시행의 효과

대학과목선 이수제(UP)의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대학과목의 심화학습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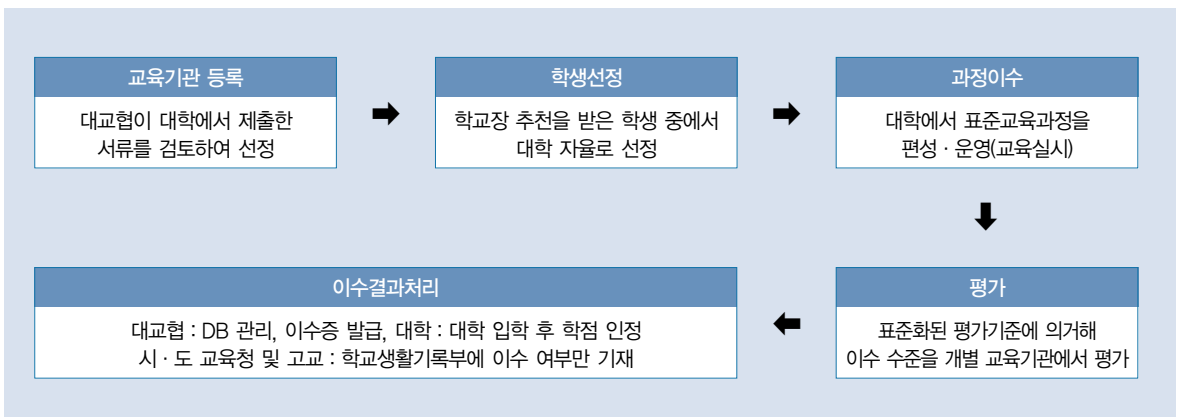


그림 1. 대학과목선 이수제(UP) 운영 단계

도를 높이고 잠재능력을 계발하는 효과를 가진다. 더불어 개개인 학습자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의 의미 또한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개별화·수월성 교육의 추구를 통해 평준화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둘째, 국가·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하여 육성할 수 있게 해 주며, 우수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을 유인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셋째, 고교-대학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러한 교육과정을 매개로 고등학교와 대학이 상호 협력과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고교교육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고교 및 대학 교육의 질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학생의 입장에서는 고등학생이 대학과목을 미리 이수할 수 있어 대학 조기졸업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며, 대학에서 자신이 원하는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게 된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특정 학문 분야에 보다 동기화된 학생을 교육할 수 있게 되며, 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또한 지니게 된다. 고등학교의 입장에서는 수시모집에 합격하거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후 실질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과정을 선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욕구를 자극할 수 있으며, 교육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VI.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제언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개별화·수월성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의 창의적 사고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자

기계발능력을 갖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고교-대학 간 연계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한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교육적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교육 목적에 따라 창의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방법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이수 결과가 대학입학과 연계된다면 과열 경쟁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업부담의 가중 및 사교육의 활성화 등 국가·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제도 도입의 본질적인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등 학생 선발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의 흐름 속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고교교육과 대학입학제도라는 전체의 틀 안에서 종합적인 관점을 가지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대학은 고득점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성장가능성을 지닌 학생을 발굴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바람직한 학생선발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학과목선 이수제의 운영은 고등학교의 보편교육에 수월성 교육을 조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때 대학과목선 이수제는 고등학교가 제도운영의 일차적인 기관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도입 초기에는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하나 중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대학과목선 이수제를 고등학교에서 운영하게 될 경우 담당교원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 따라서 담당교원에 대한 연수체제의 구축 및 자격인증제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우수한 교육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 관리 및 평가의 공정성과 균일화가 이루어져 이수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대학과목선 이수제 교육기관이 고등학교로 확대될 경우 전국단위의 표준화된 평가체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대학과목선 이수제가 21세기형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실천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박선미 외. 2005. “선수 학점 인증 시험에 관한 연구”, KAIST · 한국과학재단.
- 박선미, 김재춘, 김훈, 김경대, 이태상, 김용남, 신광수. 2006. “AP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박선미, 이태상, 김경대, 김훈, 박승렬, 신광수. 2007. “우수학생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체제 및 교육기관 평가인증방안 연구”.

필·자·약·력

박선미

중앙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천문연구원 과제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연구소 박사 후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과학기술원 과학영재 교육연구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로는 “우수학생 대학과목선 이수제 운영체제 및 교육기관 평가인증 방안 연구”, “대학과목선 이수제 도입에 대한 인식조사”, “AP 제도 도입을 위한 기획연구”, “선수 학점 인증 시험에 관한 연구” 등 다수가 있다.